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제도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고용 준비 기금(EPF), 기여식 연금 프로그램, 산업재해 희생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보험 프로그램(SOCSO) 등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음

- 경제위기 같은 충격에 대비한 최저수입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공식·비공식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경제 쇼크나 자연재해 시 경제·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가 됨

1. 사회보장 개요

□ 연금

○ 공무원 연금 제도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는 1951년 정부 연금 조례 (1980년 연금법으로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함. 상임직 공무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인정된 봉직의 완료를 확인했다는 단서 하에 비기여식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는 연방, 주, 지방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의 고용인 (employee), 판사, 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 급여를 담당함. 그러나 해당 시책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공무원들은 제외됨

· 이 제도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정 퇴직 연금은 최종 월급의 50%이며 연방 공무원을 위한 연금은 연방정부 총 세입에서 지급됨. 공기업, 법정 공공 사업기관, 지방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고용인에 대하여 해당 고용인 월급의 17.5%를 기여하며 고용인 자신들은 기여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고용준비기금(EPF; Employment Provident Fund)은 1969년 고용인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구(SOCSO)를 통해 고용, 상해, 질병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는 두 개의 별도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 상해 제도는 1972년 시행되었으며 질병 연금 제도는 1974년에 도입되었음.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 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나 이 법은 월 당 2000링깃 이하를 버는 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됨

· 일단 고용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은 수입과 관계 없이 유효하고, 여기서 면제되는 주요 집단은 가사 도우미, 임시 노동자, 군대 및 경찰 직원들임. 고용상해 제도를 위한 기여비율은 대략 임금의 1.25%이며 전액 고용주가 부담함. 질병연금제도를 위한 기여비율은 임금의 1.0%이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균등하게 부담함

- 현재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노동자 혹은 농부 등의 급여가 낮은 일에 종사하였음. 여성 노년층 중에서 절반은 한 번도 가사외의 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노년층들에게 대부분의 수입은 즉 자녀로부터 또는 자카트(빈곤층을 돕도록 회교국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회교 과세제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Bantuan Orang Tua(노년층을 위한 원조)과 같은 공적 부조 지급 등임. 말레이시아에서는 연금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수입 보장은 비공식적인 경로, 특히 자녀로부터의 주어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근로자 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정부 고용인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고 비공식적 부문 종사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 것도 받지 못함. 말레이시아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EPF, 고용 상해 및 질병 연금 제도, 공직과 군인을 위한 노령연금제도가 있음. 그 외 연금들로는 교사준비기금 (TPF: Teachers Provident Fund), 말레이시아 자산국의 직원 준비기금 (Malaysian Estates Staff Provident Fund) 그리고 소수의 법정, 민간 준비 기금들이 있음. 그러나 그 규모가 다소 작아서 말레이시아의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함

□ 건강보험

- 말레이시아는 노년층의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재정 시스템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음.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들은 고용준비기금 (EPF)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0%는 의료 급여를 위해 사용됨. 이 기금은 주로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정부 고용인들도 참여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구(SOCSO)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근로 시민과 그 부양가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며, 민간 의료 보험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 말레이시아의 전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 보급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은 의료비용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빈곤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 아동들은 기존에 갖춰있던 사회보장제도로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아 오고 있음. 정부가 공급하는 보편적 혜택, 즉 몇 가지 필수적 생활용품 지원 뿐 아니라 특히 무상 교육과 의료혜택은 대부분의 아동과 빈곤 가정들이 안전망의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빈곤 가정과 아동들,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보호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한 취약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포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

○아동들의 장애와 발육상의 문제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 발달 지체, 뇌성마비, 지능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신질환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음. 이러한 증상들은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 나은 결과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임. 지역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부에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으로 등록된 170,455명은 과소한 추계임. 아마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국제 연구들으로써, 그들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10% 이상이 발육 문제를 갖고 있으며 발견되는 숫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음

□ 노년층을 위한 공적 부조

○금전적 수당과 의복, 식량 등 현물 급여뿐 아니라 기능자 훈련과 소기업 창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데, 사회복지부가 집행함. 이 제도는 엄격히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저소득이 자격 규정의 기본 결정요인이 됨. 그러나 이 급여들은 법적 책임이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척이 있는 청구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연방정부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액수에 한계를 설정하는데 급여는 한 가정의 총 월수입에 근거하며 월정 급여는 일인당 80링깃으로, 최대 한 가족 당 350링깃까지 지급됨. 60세 이상으로 곤궁하거나, 몸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매월 130링깃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이러한 수당들은 도시 지역의 청구인들에게 편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시골 거주민들의 무지 또는 신청서를 대도시 소재 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행정 절차 때문임

2.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 노령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연금 기금	1980년 법령 및 지역 당국의 연금법 및 2007년 개정된 퇴직 기금법	· 공공부문 고용인은 퇴직 시 연금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한 달 후에 지급된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연금 급여는 해당 고용인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된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총585명의 고용주와 130,142 명의 기여금납부자가 등록되어 있다	Kumpulan Wang Persaraan(KWAP) [Retirement Fund Incorporated]
준비기금 (Provident fund)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개정 (사회보장), 1991년 (준비기금)	· 민간 부문 고용인들이 퇴직 후 필요에 대비하도록 고안된 의무 저축 제도 · 기여금은 EPF(고용준비기금) 회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뜻한다. 그 금액은 고용인의 월급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현재 기여금은 고용인 임금의 23%이며, 그 중 11%는 고용인의 매월 임금에서, 12%는 고용주가 기부한다. 기여금 납입자 수는 총 6백1십1만 명이며, 고용주 수는 481,886 명이다	EPF (고용준비기금)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배당금 및 상여금 포함 일시불 인출	1973년 국회법	· 주요 목적은 말레이시아 군인 하사관들에게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를 제공하고, 장교들을 위한 저축 제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회원들의 기여금은 월급의 10%이며, 여기에 정부 출연금이 15% 추가된다. 자원해서 기여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신들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최초 인출금 수령이 있는 후에도 다시 분담금을 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수급자의 숫자는 24,325명이다	말레이시아 군대
노령 인구를 위한 재정 보조	-	· 빈곤 노년층이 지역 사회에서 관심, 보호, 지원아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개인 당 매월 150 링깃의 수당 지급 ·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입원이 없고 도움을 제공할 가정이나 가족이 없는 자. 총 9만9천3백9십9명이 본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사회복지부

□ 장애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장애 근로자들을 위한 장려 수당	-	· 장애인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고용 자립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생산적 일원이 되게 하려는 장려책.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 개인 당 월별 수당으로 300 링깃 ¹⁾ 지급 · 사회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인들. 또한 가족 소득을 제외한 월소득이 1200 링깃 이하이며, 16세 이상의 음식, 주거지, 의복을 제공하는 어떤 보호 시설에도 거주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총 수급자 수는 35,084 명이다 · 이 제도는 소득이 1200링깃 이하인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사회복지부
근로 불능 장애인들을 위한 재정 보조	-	·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소득 유지.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시설로서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함 · 개인 당 월별 수당 150 링깃 지급 ·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자로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들은 의료담당자의 증명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부의 재정보조 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자. 정부 또는 NGO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함 · 총 수급자 수는 14,799명	사회복지부
자리 보전 장애인 및 만성병자를 돌보는 자들에 대한 재정 보조	-	· 장애인 혹은 만성병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재정 부담을 줄임. 장애인이나 만성병자에 대한 보다 나은 돌봄을 장려함. 이 대상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기관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가족간 관계를 강화시킴 · 개인당 월별 수당 300 링깃 지급 · 신청자는 장애인이나 만성병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민으로, 가족 수입이 월 3,000 링깃 이하인 빈곤 가정의 구성원이어야 함 · 총 수급자 수는 17,297명	사회복지부

1) 1 말레이시아 링깃 = 360 원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사업개시 장려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집단에 재정 보조를 제공함. 재정 보조 수령인들의 독립을 장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함 · 일회성 일시불 지원금 지급(2,700 링깃) · 매월 보조금 수령자(혹은 가족), 현재 사회복지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 과거 복지 기관에서 교육 받았거나 감독 또는 보호 관찰 하에 있던 자 · 수급자 수는 총 598명 	사회복지부
인공보조장치나 보조 기구에 대한 재정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공 다리, 팔, 부목, 목발, 휠체어, 특수 안경, 특수 신발, 기타 지지 기구 및 도구 등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장애인을 도움. 장애인들의 능력 향상을 도와 자립을 도움 ·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의사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인공 보조 장치나 보조 기구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 · 총 수급자 수는 1,271명 	사회복지부
사망 및 장애 급여 제도	1973년 의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함 · 월별 기여금 제도 하에, 말레이시아 군대 하사관 급 복무 군인들은 월급의 10%를 군대에 납부하고, 정부는 고용주로서 15%를 기여한다. 장교들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여금은 매월 최소 25링깃에서 최대 750링깃이다 · 수급자 수는 530명 	말레이시아 군대
준비기금 및 사회보험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기금으로 장애인을 도움 · 최소 2년의 기여금 납부 실적과 더불어 최초 보험 가입 이후 총 개월 수의 최소 33.3%가 되는 개월의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액 연금이 지불된다. 장애 등급은 사회보장기구가 임명한 의료위원회가 보건부와 협의 하에 판정한다. 최저 월별 장애 연금은 250링깃이다 · 보험 가입자가 사회보장기구의 의료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일상생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 시중을 들어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지급된다 · 수급자 수는 17,297명 	Employment Provident Fund (EPF)
영구 장애 급여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기금과 사회보험으로 장애인 지원 · 장애가 20% 이하로 판정된 경우 피보험자는 급여를 일시불로 요구할 수 있다. 장애가 최소 20%이상일 경우 월별 급여나 연금을 지급 받으며, 최대 20%의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안전기구에 의해 임명된 의료위원회는 보건부와 협의 하에 장애 등급을 판정한다. 급여는 생활비와 기금의 재정 건전성 상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수급자는 18,943명의 장애인 	재정부, EPF(고용 준비기금),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기구(SOCSO)

□ 유족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유족 급여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기금과 사회보험으로 유가족 지원 · 유가족 급여(준비기금): 고용인과 고용주가 납입한 기여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인출금을 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추가 급여 (준비기금): 2,500링깃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 유가족 연금(사회보험): 사망자가 장애 연금 수급자이었을 경우, 100%의 장애 연금이 지급되고, 사망자가 고용된 상태였을 경우 기여금 납입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 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60%가 지급된다. 최소 유가족 월 연금은 250링깃이다 · 유가족 연금: 사망자가 사망 전 40개월 동안 적어도 24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또는 최소 24개월의 기여금 납입 실적과 더불어 최초 보험 가입 이후 총 개월 수의 최소 66.7%의 기부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 감액 유가족 연금: 감액 연금은 피보험자가 최소 24개월의 기여금을 낸 실적과 함께 최초 보험 가입 이후 총 개월 수의 최소 33%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에 사망 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의 50%가 지급된다 · 장례 급여(사회보험): 최고 1,500링깃이 피보험자의 유가족이나 친족에게 지급된다 	준비기금은 재정 부 및 고용준비기금, 사회보험은 인적자원부 및 SOCSO (사회보장기구)

□ 질병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긴급 연방 원조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원조를 요하는 빈곤층을 돕기 위함 · 만성병 환자의 원조로 일시불 최대 500링깃 · 월 수입 1,000 링깃 이하인 빈곤층 가정. 수혜자 숫자는 1,832명 	사회복지부

□ 산업 재해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산업 재해 보험	1929년 사회보장 및 1969년 개정 사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소득이 최고 3,000링깃 이하인 고용인 의무 가입. 3,000링깃 이상의 소득이 되더라도 과거에 등록된 고용인의 경우 계속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자원 가입자의 경우는 한 달에 3,000 링깃 이상 소득이 되는 고용인 중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 예외: 가사 노동자, 군대의 일원, 공무원, 보호 시설에 있는 자, 재소자, 사업체 소유주의 배우자, 자영업자 · 최소 기간 요건은 없고, 총 수급자 수는 34,020명 	SOCSO (사회보장기구)

□ 실업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견습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부의 재정 보조금 수령자의 자녀들 특히 학교 중퇴, 실업 상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기술 훈련이나 인턴십을 받게 한다 · 월별 급여이며 매월 개인 당 200링깃 급여 지급 · 비행 사례로 사회복지부, 그 외 다른 의뢰인이나 부서의 감독하에 있는 아동들. 수급자 수는 1,342명 	사회복지부

□ 가족 수당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재정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부의 대상집단인 빈곤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거나 또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 · 공적 보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마다 상이하다. Perlis: 50~150링깃, Kedah: 80~350링깃, Palau Pinang: 60~200링깃, Perak: 50~115링깃, Selangor: 70~175링깃, Negeri Sembilan: 100~200링깃, Melaka: 140~230링깃, Johor: 50~115 링깃, Pahang: 50~175링깃, Terengganu: 200~450링깃, Kelantan: 50~RM링깃, Sabah: 70~175링깃, Sarawak: 60~250 링깃 · 수급자 수는 23,679명 	사회복지부
아동들을 위한 재정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계속 가족과 함께 살며 사랑, 돌봄,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가족 제도를 더욱 육성 강화시켜 부모들이 자립하고 자녀들을 위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월별 급여이며 최소 한 사람당 매월 100 링깃이고, 네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각 가정에 최대 450링깃 지급 ·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 18세 이하 아동, 고아, 부모나 보호자가 있지만 자신을 돌 볼 능력이 없거나 허약, 장애, 질병 또는 투옥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아동 · 수급자 수는 총 66,912명 	사회복지부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재정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복지 기관에 보내지지 않도록 장려함. 아동들을 복지 시설에서 위탁 가정으로 옮겨 건강한 가정 환경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사회적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 위탁 가정에서 살면서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식시킴. 아동들을 보살피기로 위임된 위탁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 시킴 · 각 아동에 대해 매월 최소 250링깃, 둘이나 그 이상의 아동들을 돌보는 각 가정 당 최대 500링깃 지급 · 수급자 아동의 총 수는 140명 	사회복지부
학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수험료, 연습문제집, 교통비, 교복 등의 실제 비용 지급. 초등학교의 경우 한 아동 당 1년에 180링깃, 중등학교는 한 아동 당 220링깃 · 빈곤층 아동, 고아, 장애아동, 부모가 실직, 장애, 질병이 있거나 투옥 또는 구금된 가정의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월소득이 재정 보조 자격이 될 만큼 낮은 경우 해당 · 수급자 수는 6,209명 	사회복지부

3. 마치는 글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고용 준비 기금(EPF), 기여식 연금 프로그램, 산업재해 희생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보험 프로그램(SOCSO) 등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음. 경제위기 같은 충격에 대비한 최저수입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음. 공식 · 비공식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경제 쇼크나 자연재해 시 경제 · 사회적 불안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가 됨
- 말레이시아 정부가 견실한 기초보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2008년의 경우와 같은 경제 위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취했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 모델을 구조 조정 한 것으로, 제안된 신경제모델 (NEM)은 국가의 경제를 재정비 하는 것이었음. 신경제모델(NEM)은 그 포괄적인 성장 목표와 접근 방법으로 인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 어떤 집단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친 빈곤적인 성격을 보이며 성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신경제모델에 따르면 그 포괄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사회가 국부에 공헌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신경제모델은 포괄적 성장의 주요 도전으로 부미푸트라 (Bumiputera: 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특별한 입장과 다른 집단들의 적법한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대책들을 고안하는 것임. 말레이시아 신경제모델의 최종 목표는 일인당 GDP가 향후 10년 이내에 7,000 US 달러에서 15,000 US 달러로 상승하는 것임
-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경제모델의 의도가 말레이시아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함. 신경제모델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차별 철폐적인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이며 수급 기준을 능력, 필요, 자격에 근거하는 것임. 기존의 정실주의를 자격에 근거한 수급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현재의 공적 부조 관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나 올바른 공적 부조를 위해 엄격한 수급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임

홍석표(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